

「국민승리21」 대선운동 평가와 향후 조직발전 전망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가는 시험에 보지 않는 한 알 수 없다

-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노회찬

진보정치연합대표, 「국민승리21」기획위원장

제 15대 대선에서 권영길 후보와 「국민승리21」은 자신의 힘을 확인하고 과시하기 위해 출마하였다. 또 이같은 시험을 지속할 대중적 기반과 인적, 물적 준비를 갖추기 위해 출마하였다. 306,023표를 라는 득표 결과를 놓고 볼 때 권영길후보와 「국민승리21」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데 실패한 것이 분명하다. 노동자의 자존심은 상처를 받았고, 하던 된다는 자신감을 확산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득표상의 패배가 곧 정치적 실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성패는 권영길후보와 「국민승리21」이 이번 대선에서 무엇을 얻었으며 그것을 향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따라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불만족스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이같은 시험을 해선 안된다거나 당분간 이러한 노력을 유보하자는 주장은 거의 없다. 반대로 자신의 힘을 키우기 위해, 첫 번째 시험의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열정을 갖고 이 시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그래서 상처를 더 받았을 사람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1. 대선 참가의 의의

「국민승리21」의 이번 대선 참가가 갖는 첫 번째 의의는 민주노총의 참가로써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새 장을 연 데 있다. 87년과 92년에도 노동운동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이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라는 기

치 아래 독자후보운동을 주도하였다. 그러나 당시 민주노조운동은 대표하던 노동조합 조직의 참여없이 추진된 독자후보운동은 출발부터 근본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 점에서 민주노총의 대선참가는 그간 노동조합 교육과 토론의 주제로만 머물던 노동자의 정치적 단결을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실천과제로 끌어내렸다는 점에서, 그리하여 노동자대중에 의한 정치세력화가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한국 진보정당운동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최초의 시도인 만큼 민주노총의 대선참여는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서 적지 않은 한계와 시행착오를 드러냈다. 특히 대선참여문제에 대해 단위노조 위원장등 일선 지도부의 공감대가 보다 일찍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채 조직 방침이 결정되고 집행됨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내내 조직력을 가동하고 재정을 마련하는데 일정한 난관이 조성되었다.

이번 대선 참가의 두 번째 의의는 재야운동진영의 대다수가 단일한 방침에 의해 공동선거기구를 결성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선거시기마다 재야운동을 괴롭혔던 반목과 갈등이 재현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서도 의미있는 출발이었다. 물론 이것은 재야운동의 단결이 그간의 이견을 해소하고 분열을 극복하는 치열한 노력의 결과라기 보다 정치세력화를 통한 정당건설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운동지평의 변화, 더 이

상 DJ를 지지하기 힘든 정치환경의 변화로부터 강제된 성격이 강했던 것 또한 사실이다. 그리하여 제15대 대선 이후의 정치세력화 과정에서도 이번과 같은 공동대응이 유지되고 화학적 결합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 인지는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는 부분이다.

2. 제15대 대선의 목표

향후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정치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은 「국민승리21」과 여기에 참여한 모든 조직들이 내세운 제15대 대선의 제1의 목표였다. 그리고 이러한 목표는 비록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진 못했지만 대선의 성과와 지방선거의 성과 위에서 2000년 국회의원선거 전에 진보정당을 창당하는 프로그램을 상정하는 것이기도 했다. 한편 명시적인 목표로 설정되진 않았지만 노동운동의 질적 발전과 재야운동의 조직적 재편은 이번 대선 참여를 통해 추구해야 할 중요한 과제였다. 노동운동의 발전이 일상적인 조합활동과 경제투쟁으로만 이뤄질 수 없는 것인 만큼 민주노총의 대선참여는 한편으론 부담과 출혈을 감수하는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노동운동의 질적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기도 했다. 재야운동 역시 현존하는 조직들과 활동방식으로 역사적, 정치적 소임을 다할 수 없는 것이 판명된 이상 제15대 대선은 재야운동의 근본적인 조직 재편을 위한 소중한 정치적 계기였다.



92년과 97년 대선에 차이점은 무엇인가? 6선이라는 세월만큼 우리는 진전했는가?

3. 지조한 득표율의 배경

「국민승리21」은 이번 대선에서 선거 참가 유권자의 4%, 즉 100만표 득표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목표치는 그간 각종 선거에서 드러난 진보성향 후보의 득표 결과와 이번 대선의 4차 대립구도 등을 감안한 결과였으며, 정치적 시민권과 발언권을 확보할 수 있는 최상의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동시에 70만표를 득표상의 성공과 실패를 나누는 분기점으로 보았으며 이를 위해 선거운동 개시일인 11월 26일 이전에 3%의 여론조사 지지율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30만표를 갖 넘는 득표결과는 예상할 수 있었던 최악의 결과였다. 그리고 선거운동 과정에서 드러난 모든 한계와

문제점들은 경중의 차이가 있을 뿐 예외없이 저조한 득표율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선거운동 준비기간에서부터 내적 자원동원의 실패, 선거 후반 박빙의 2차 대립구도형성, 미디어대륙의 실패 등은 기대 이하의 득표율을 낳은 핵심 요인으로 평가된다. 여기서는 그 중 2차대립구도가 미친 영향에 대해서만 살펴본다.

투표 당일에 이르기까지 각종 여론조사상에 나타난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선거 대립구도의 변화와 적극적인 선거운동에 따라 몇차례의 굴곡을 보여왔다. 7월까지의 여론조사에서 4~6%를 기록하던 권영길후보의 지지율은 조순, 이인제후보가 출마선언을 한 9월 이후 1%대로 격감하였다. 기성 정치권과 3김정치에 반대하던 유권자의 상당수를 조순과 이인제후보가 흡



한국연립과 민주노동의 대선참여 걸치는 진보진영 선거운동의 두 축이었다.

수한 것이다. 낮은 지지율과 언론의 봉쇄 등으로 인해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이 1% 수준에 머무는 현상은 『국민승리21』이 공식출범하던 10월 26을 거쳐 후보가 등록하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1월 26일 까지 계속되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의 성과가 축적되고 여론조사결과에 반영되기 시작한 것은 11월 26일 이후였다.

비록 오차범위 내의 지지율이라는 한계가 있었으나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통으로, 동일한 추세를 나타낸 것으로 볼 때 지지율의 변동에 관한 경향적 추세를 읽는데는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다. 11월 26일 이후 권영길 후보의 지지율은 완만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으며 선거 일주일을 앞두고 2%를 돌파하는 신장세를 보였다.

이렇게 볼 때 선거 막판에 형성된 김대중-이회창 간의 선두다툼이라는 박빙의 대립구도는 권영길후보 지지층에서 적지 않은 이탈표를 발생시켰다. 선거가 1,2위 간의 결선투표 양상으로 변질되고 그 격차가 근소하게 되자 자신의 소중한 한표를 1등을 결정하는데 사용하려는 유권자가 늘어갔으며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던 진보성향의 유권자 내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적지 않은 지역과 화이트칼라계층에서 권영길에서 김대중으로, 권영길에서 이회창으로의 이동이 이뤄진 것도 이 무렵이었다.

4. 노동자표의 결집이라는 의미있는 변화

『국민승리21』이 절감했던 현실의 높은 벽과 이를 어느 정도라도 극복해내지 못한

14. 15대 독자후보 득표결과 비교

(단위: 명, %)

구분	제14대 백기완(1992)		제15대 권영길(1997)	
	득표수	득표율	득표수	득표율
서울	67,748	1.1	65,663	1.1
부산	1,736	1.0	25,581	1.2
대구	12,772	1.1	16,268	1.2
인천	12,455	1.3	20,340	1.6
대전	5,772	1.0	8,444	1.2
경주	1,565	0.2	1,478	0.2
울산	-	-	32,135	6.1
경기	36,392	1.1	47,608	1.0
강원	9,599	1.2	8,231	1.0
충남	10,185	1.1	9,604	0.9
충북	8,671	1.2	10,232	1.3
전남	3,311	0.3	2,199	0.2
전북	4,231	0.4	4,189	0.4
경남	22,863	1.1	27,823	1.7
경북	17,664	1.1	22,382	1.4
제주	3,647	1.4	3,856	1.4
전국	238,648	1.0	306,026	1.2

출처: 「매일노동뉴스」, 1997년 12월 20일자

전술상의 문제로 권영길후보는 의미있는 득표를 하는데 실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득표상의 실패가 곧 정치적 패배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체적인 표분석을 통해 확인된다. 먼저 지적할 수 있는 것은 1992년 백기완후보의 지지율이 호남지역을 제외하곤 광역단위에서든 지역단위에서든 거의 전국 평균치인 1.0%에 근접한 수치를 기록하였다. 이에 반해 권영길후보의 지지율은 노동자 밀집지역에선 평균 이상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예를 살펴보면 울산 중구의 경우 1992년 백기완후보 지지율이 1.1%였는데 반해 이번 대선에선 중구가 5.2%, 중구에서 분구된 북구가 14.0%를 기록한 것이다. 그 외에도 92년

과 97년의 지지율을 비교하자면 울산 동구가 1.1%에서 9.7%로, 거제가 1.1%에서 4.0%로 창원율이 1.1%에서 3.8%로, 경주율이 1.1%에서 3.3%로, 평택율이 1.1%에서 2.4%로 변화를 보였다. 또한 사무직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분포한 서울, 부산, 대구 등의 대도시 지역에선 백기완후보의 지지율보다 더 낮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종합해볼 때, 1992년 백기완후보의 지지계층이 주로 진보지향의 화이트칼라계층과 지식인, 학생이었던 반면 1997년 권영길후보의 주된 지지계층으로는 블루칼라계층이 급부상한 것이다. 즉 외형으로 백기완후보가 얻은 표보다 7만 여표를 권영길후보가 더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표의 구성-지지계층의 구성상 상당한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된 것이다.

5. 「국민승리21」의 나이값 길

「국민승리21」의 선거패배에도 불구하고 울산 북구의 사례는 「국민승리21」이 이번 선거에서 무엇을 얻었으며 정치세력화를 위한 노력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는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울산 북구의 예가 손꼽히는 것은 단지 높은 득표를 때문만이 아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높은 득표율이 단지 노동자 밀집지역이라는 지역특성으로부터 기인하는 것도 아니다. 울산 북구에서 상대적으로 높고 의

미있는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첫째, 1987년 대선 이후의 각종 선거에 참여하면서 축적된 현실 정치와 선거매카니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소산이다. 둘째, 1995년 지방선거에서 노동자계층에 기반한 두명의 시의원을 배출하였으며 이들의 지속적인 지역활동의 성과가 이번 대선에서도 반영된 것이다. 셋째, 현대자동차노조를 비롯한 이 지역 진보운동 조직들의 적극적이며 현실적인 선거운동의 결과이다. 결국 문제는 현실정치와 선거매카니즘에 대한 철저하고 현실적인 인식과 경험의

축적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성 있는 정치활동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는 곧 이번 대선의 작은 성과를 정치적 성공으로 만들어 나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국민승리21」의 나아갈 길을 시사하는 것이다.

「국민승리21」이 중단없는 전진을 선택해야 한다는 요구는 객관적 정세와 주체적 필요 양측면으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김대중정부가 들어서고 당분간 지속될 IMF정국 하에서 고용문제, 생존권문제, 근본적인 정치 경제 개혁과제를 제기하면서 노동자와 서민대중을 대변할 정치세력은 이제 「국민승리21」밖에 없다. 또한 이것은 권영길후보와 「국민승리21」이 선거기간 동

안 국민 앞에서 선언한 공약이기도 하다. 주체적인 요구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미 상당수의 지역에선 이번 대선 참가의 성과로서 지역 정치조직을 합심하여 건설하려는 노력이 시작되고 있다. 대선기간 동안 공동선거대책기구로 활동한 「국민승리

21」이 빠른 시일 안에 단일한 정치조직으로 전환하여, 진보정당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와 노동자, 서민대중을 대변하는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전개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인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단절해야 하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도 대중적 설득력도 없는 재야운동 방식이며 동시에

청산해야 하는 것은 작은 실패에 움츠러드는 패배주의와 관념적인 준비론이다. 진보정당은 모두가 함께 대중의 눈 앞에서 만들어 가는 것이며, 이 일은 이미 대선참가를 통해 시작되었다. 「국민승리21」은 이 일을 계속해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다. ❖

지금 우리가 단절해야 하는 것은
문제해결 능력도 대중적 설득력도 없는
재야운동 방식이며 동시에 청산해야
하는 것은 작은 실패에 움츠러드는
패배주의와 관념적인 준비론이다.